

'한잔의 유혹' 아내 눈물 떠올리며 물리쳐

작심 365 <3> 청과물 상인 김선우씨 절주 성공기

음주 후 남의 차 부수고 고성방가... 10년간 술꾼 악명 금주 3년... 건강 회복·득녀·점포 확장 등 경사 잇따라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김선우(34·가명) 씨는 '술꾼'이었다. 단순히 술을 즐겨 마신다는 차원을 넘어 '주정뱅이'로 악명을 떨쳤다. 군 제대 직후였던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직업도 있고 일도 열심히 했지만, 지인들에게는 '김선우'하면 '전대 후문의 술 주정뱅이', '술보'로 여겨졌다. 주차된 차량 후사경을 망가뜨린 것만 수십 개. 지인의 상가집에서도 과음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장례를 방해해 조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다.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등 돌리려고 할 때쯤 선우씨가 금주(禁酒)를 선언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약속이 올 연말로 3년을 꼭 채우게 됐다. 그는 왜 술을 끊었을까?

◇불가능으로 보였던 '금주' 성공=10년 이상 술꾼으로 살아온 선우씨를 한 순간 변화하게 한 결혼을 앞둔 그의 여자친구였다. 3년 전 12월의 어느 날도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자정이 훨씬 지나 귀가한 그에게 여자친구(현재 아내)가 말했다.

"이제 제발 술 좀 끊어요. 선우씨 믿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서 당신 집에 들어오 나를 봐서라도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당신이 사람이라면 이제 그만 줘요."

술김에 잔소리를 퍼붓는 아내를 향해 평소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술주정을 부린 뒤 화장실로 향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생전 처음 술을 끊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같이 화를 내고 싸우다 결국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더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아야겠다고 맘 먹었어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전하고, 술 마신 날이면 수없이 되풀이됐던 잠 못들이 떠올라 부끄러워지고..."

선우씨는 그날 이후 지금껏 술 주정을 한 번도 안했다고 했다. 간혹 예의상 술을 한 잔 입에 댄 적은 있었지만 두 잔 이상 마시지는 않았다.

술을 끊기로 결심한 뒤 선우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와 친구, 지인들에게 금주를 선언한 일이었다. 아쩔 수 없이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할 때면 서둘러 밥만 먹고는 일찍 빠져나왔다. 자리가 길어지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술독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건강 회복하고 신뢰도 되찾아=코박 3년간 절주를 이어가면서 선우씨가 얻은 소득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자신을 향한 아내의 믿음이 전과는 달라졌다. 주정뱅이로 치부하며 혀를 끌끌

찔던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고, 건강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해마다 수차례 나타났던 각혈도, 만성 소화불량도 사라졌다.

청과물 도소매를 하던 선우씨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미각'도 예리해졌다. 술을 입에 대지 않으면서 수박, 참외, 복숭아, 포도, 딸기, 사과, 배 등 공판장에 나온 과일 맛이 한 층 더 구체적으로 혀에 느껴졌다. 절주 약속을 수년간 지키면서 자신감은 차고 넘쳤고 술자리가 사라지다 보니 생활도 안정됐다.

최근 부부 금슬도 좋아 예쁜 딸이 태어났다. 청과물상 10년 만에 노점 생활을 청산하고 번듯한 점포를 올해 두 곳에 내는 등 술을 끊은 뒤 경사가 계속되고 있다.

선우씨는 말했다. "담배를 끊는 것, 술을 끊는 것, 도박을 끊는 것... 모두 힘든 일이지.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러다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확고하다면 이 모든 게 꼭 불가능은 아닌 것 같아요."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차 빼세요'

전국서 주차단속 전 문자서비스

광주 서구와 광산구, 여수시는 주차단속 속에 앞서 차를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77개 지자체가 서비스하고 있고, 이를 제공받으려면 지자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 신청으로 77개 지자체의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국도교통부·교통안전공단은 정부3.0 정책과제로 '주정차 단속구역 사전 알림 서비스'의 전국 일괄 신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까지 광명시, 수원시, 의왕시, 당진시, 부여군, 영등포구, 구로구 등 7곳이 서비스 신청 통합을 완료했다. 또 여주시와 창원시 등 9개 지자체도 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 세 기관은 나머지 지자체와도 통합 신청을 협의하고 있다.

통합 신청을 하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주정차 문화 지킴이'를 내려받거나,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pvn.ts2020.kr)에서 가입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22-1587)에서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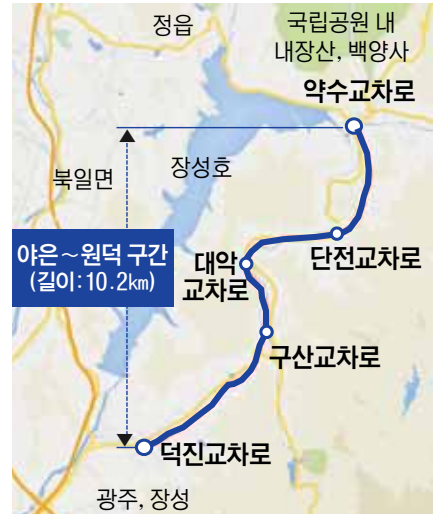
주정차 문화 지킴이 앱에서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외에 자동차 검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차량 위치에 따른 폭설이나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와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금남로 '동지 팔죽 데이' 서울 남산 월명사 주지 월명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2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입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하는 동지 팔죽 데이' 행사를 열어 시민들에게 동지죽을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도 1호선 장성 아은~원덕 구간 위치도



'상습 정체' 백양사 주변 도로 뺄~

장성 아은~원덕 4차로 개통

전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국도1호선 장성 아은~원덕 구간이 개통돼 백양사 주변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20일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따르면 국도 1호선 장성 아은~원덕 도로공사가 끝나 21일 오후 2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

2003년 착공한 아은~원덕 도로공사는 장성군 장성을 상오리에서 북하면 약수리에 이르는 10.2km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 1256억원을 투입, 도로 확장도 함께 터널 1곳·교량 12곳·교차로 5곳을 설치했으며 기존 도로의 선형도 대폭 개선해 이 구간 도로 안전성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대성 익산국도청장은 "단풍철 관광 명소인 국립공원 내장산과 백양사 주변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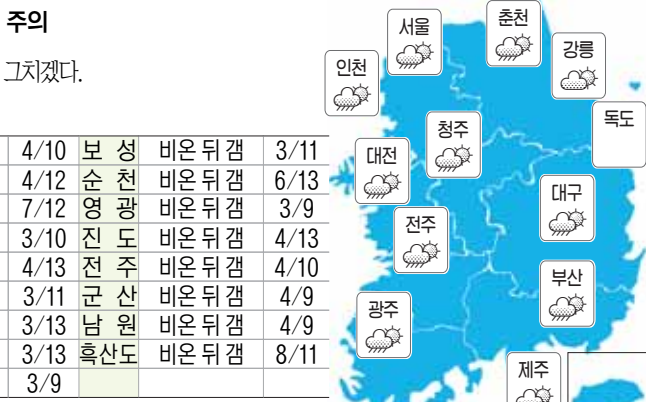
해돋이 07:37 해질녘 14:15
해짐 17:24 달님 02:38

아침 안개 주의

흐리고 비가 오다가 그치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온 뒤 맑음	4/10	보성	비온 뒤 맑음	3/11
목포	비온 뒤 맑음	4/12	순천	비온 뒤 맑음	6/13
여수	비온 뒤 맑음	7/12	영광	비온 뒤 맑음	3/9
나주	비온 뒤 맑음	3/10	진도	비온 뒤 맑음	4/13
완도	비온 뒤 맑음	4/13	전주	비온 뒤 맑음	4/10
구례	비온 뒤 맑음	3/11	군산	비온 뒤 맑음	4/9
강진	비온 뒤 맑음	3/13	남원	비온 뒤 맑음	4/9
해남	비온 뒤 맑음	3/13	축산도	비온 뒤 맑음	8/11
장성	비온 뒤 맑음	3/9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북~북동	0.5
	면바다	동~남동	0.5~1.5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	서~북서	0.5~1.0
	면바다(동)	동~남동	0.5~1.0	서~북서	1.0~1.5
	면바다(서)	동~남동	1.0~1.5	서~북서	1.0~2.0

생활지수

체감온도	관심
동파	낮음
뇌졸중	보통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19	03:04
	22:36	15:45
여수	밀물	썰물
	05:30	11:28
	17:49	00:00

주간 날씨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	☁	☁	☁	☁	☁	☁
2/11	7/9	3/6	-1/3	-4/1	-4/4	0/7

지산유원지 리프트운영업체 사업정지 30일

동구 '사고 재발시 승인 취소'

탐승객 추락 사고가 일어난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 리프트(광주일보 14일자 6면) 운영업체에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동구는 안전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업 승인 취소까지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계도운송 사업법'에 근거해 지산유원지 리프트 운영업체인 (주)나경인터내셔널에 사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구 관계자는 "중대한 과실로 보여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리고, 교통안전

공단이나 다른 안전점검 업체에 의뢰해 임시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개선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행정처분 이후 1년 내에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 사업 승인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 동부경찰도 리프트 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체는 그동안 탐승객 과실을 주장해왔다.

광주시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만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1.7%이내로 제한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20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춘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

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도 5.0%에서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 내년 1.7%로 낮아지는 추세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초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도 발표한다. /김지윤기자 dok2000@

기업하기 좋은

영광 대마산업단지

- 최대 50%입지보조금 지원! - 전국 유일 전기료 지원!

전국 최저가 분양

문의 061) 350-5437

